

2022. 7. 1 (금)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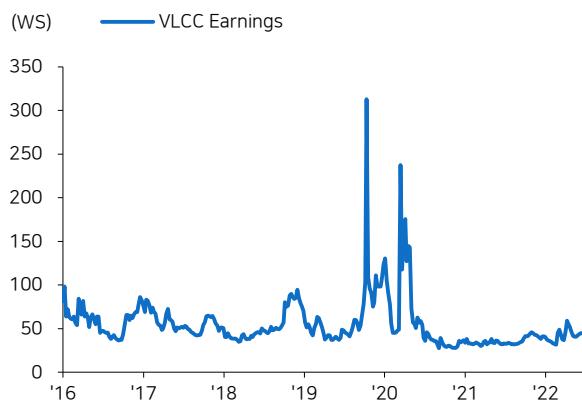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40.0p(+5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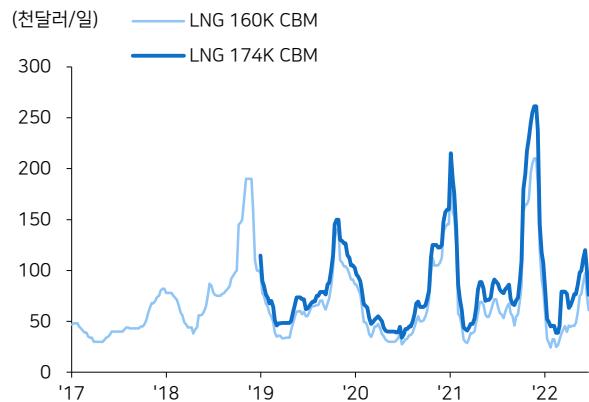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16.1(-5.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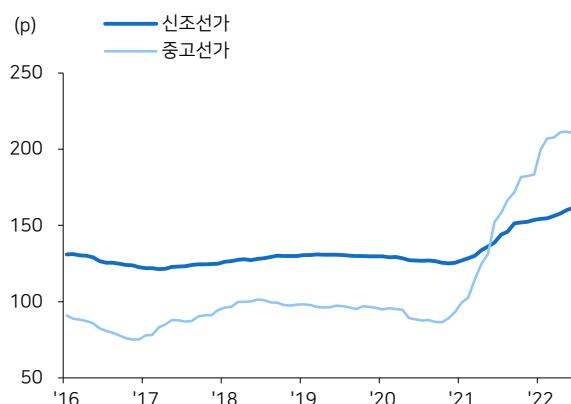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0.9p(+6.3p WoW)



LNG Spot 운임 61.0p(-15.8p WoW)
76.0p(-25.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5p(+0.7p WoW)
210.5p(-0.4p WoW)



항공시장 지표 260.3p(- DoD)
83.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 러시아 LNG선 중도금 못받아 또 계약 취소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던 LNG선 1척의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됨. 관계자들은 계약단가를 근거로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쇄빙 LNG선으로 추정함. 해당 계약은 본래 3척 1.1조원 규모였으나, 지난 5월 1척에 이어 이번에 1척이 더 계약 해지되며 계약금액은 3,379억원으로 감소함. (조선Biz)

Car carrier rates revving up as semiconductor shortage eases

반도체 공급 이슈가 해소되며 자동차운반선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됨. 이번 주, 폭스바겐은 CEO는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독일,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두 배 늘릴 것이라고 언급함.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해 5월 기준 12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알려짐. 중국 수출량 급증은 중국정부가 방역대신 경제성장을 더 중시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중국 생산량 증가는 톤마일 증가로 이어져 선주들에게 긍정적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Clouds lifting: Clarksons forecasts tanker demand growth of up to 7% in 2023

Clarksons는 2023년 탱커 수요가 2022년 대비 더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2022년 마일 수 증가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선복량 증가율도 2.6%로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언급함. 2023년 선복량 증가율은 1%가 안될 것으로 전망함. 지속되는 원유 교역망 혼란으로 전체 DWT기준 수요는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OPEC+, 서방 압박에도 석유 증산 일일 64만8,000배럴 유지

고유가 및 서방의 증산 압박에도 OPEC+는 석유 증산 속도를 6월초 결정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8월 증산량은 6월초 결정과 같이 일일 64.8만배럴로 유지됨. 6월초 OPEC+는 7~8월 증산목표를 기준 방침보다 50%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음. 다음 회의는 8월 3일에 열릴 예정임. 한편, OANDA 애널리스트는 OPEC+는 현재 생산목표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파이낸셜뉴스)

'Tug of war' between Russia and Iran forecast as changes projected for 'shadow fleet'

BRS는 러시아와 이란이 원유 수송을 위한 선복 확보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와 이란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관련되지 않은 그림자선대 VLCC 53척과 Suezmax 30척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러시아가 현재 500만배럴/일을 유지하려면 선복량과 수입자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짐. (Tradewinds)

러시아가 끊으면 영국도 잠근다고?...EU, 영국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에 긴장

영국 정부가 자국 내 가스 비축량을 고려해 유럽 대륙으로 통하는 가스관을 잠글 수 있다는 전망에 유럽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됨. 영국은 오는 9월 러시아의 EU향 가스 수출 중단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비상 가스 계획'을 점검할 계획임. 향후 몇 달 내 영국에서 심각한 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국과 유럽을 잇는 해저가스관 2개 가동을 멈출 계획임. (한국일보)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